

다국간전자상거래, 중국제품 해외진출 발걸음 가속화시킨다

2023년 중국 다국간전자상거래주체 10만개 초과, 다국간전자상거래 수출입액 2.38만억원

2023년, 한국의 중국과의 다국간 전자상거래의 수입액은 동기 대비 121.2% 급증,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수입국이 되었다. 이는 중국의 다국간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는 또 하나의 최신 레종이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다국간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2.38만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그중 수출은 1.83억

개발도 다국간전자상거래에 출해코스를 더해주었다. 호남성 황개(25세)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삼촌이 경영하는 식탁, 의자 장사가 경쟁이 치열해 실제경영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온라인판매에 눈길을 돌린 청년 창업자이다. 자가 점포가 알려 국제역에서 경영하는 각종 백그라운드(后台) 데이터를 분석한 후, 황개는 소파 수출이 잠재력이 있는 코스

획을, 편뒤뒤 등 중국의 신형전자상거래 플랫폼 업무량이 두드러져 하루 주문 최고치가 40만건을 초과했다. 다국간전자상거래 특색 산업 벨트 구축으로부터 해외 창고 전문화, 규모화,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바다, 공항 화물 운송 전용선 봉사능력과 복사 범위 향사에서 다국간전자상거래 수출 반송 상품 세수정책의 지속적 실시까지... 최근 몇년 동안 중국 각지의 정책의 봄바람은 다국간전자

이든 일련의 다국간전자상거래 지원 정책의 출범은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두어 중국 제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더 많은 새로운 조치가 출시됨에 따라 다국간전자상거래 방식도 많아져 중소기업 수출의 문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세계의 거리 좁혀간다

다국간전자상거래는 중국 제품의 해외 진출 발걸음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더 많은 중국 제품을 외국 소비자의 의식주에 융합시켜 중국과 세계의 거리를 좁혀간다. “류주의 소라면과 같은 이런 특색 미식을 나는 더 많은 해외 화인화교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고 캐나다의 귀국화교 정소진은 말한다. 광서 라패왕식품과학기술유한회사 해외사업부 책임자 오호현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몇년간 회사는 다국간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시장을 착실하게 개척해왔으며 주먹제품 ‘라패왕 소라면’을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켰다. “다국간전자상거래는 기업이 직접 글로벌 소비자를 접촉하게 하고 시장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며 제품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며 오호현은 “독특한 입맛의 소라면을 현재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의 소비자 선호도에 맞추어 계열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고 해외 유명 인터넷 블로거와의 협력을 적극 계획하여 제품의 국제적인 출시력과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2023년말, 로므니아의 한 상인이 산타클로스 모양으로 분장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곰팡’표 전통 삼륜차를 타고 아이들에게 새해 선물을 지급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곰팡그룹 금이순해외플랫폼 브랜드의 책임자 허대부는 기자에게 전통 삼륜차는 중요한 민용 생산과 교통수단으로서 전통적으로 주로 실체 매장에 의존하여 전시 판매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몇년 동안 실제매장 수가 많아지고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시장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점을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다국간전자상거래를 빌어 우리는 전통 삼륜차의 단거리 보행 대리, 화물 운송, 에너지 절약, 친환경 등 특징을 생방송 방식으로 해외 고객들에게 소개하여 해외에 가서 매장을 열 필요가 없이 적지 않은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 2019년 이후 우리의 수출액은 년평균 30% 이상 증가, 전세계 80여개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었고 대외무역팀도 따라서 5명에서 60여명으로 발전했다.”고 허대부는 소개했다. 올해 곰팡그룹은 첫 해외 대표 운영점, 해외 회장창고 건설, 해외 가공공장 설립을 적극 계획하며 수출업무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대외무역수출업 실적에 있는 기업은 64만 5,000개, 그중 다국간전자상거래 주체가 10만개를 초과했다. 중국 제조의 독특한 우세와 해외시장의 왕성한 수요는 다국간전자상거래 중사자들에게 자신감을 더해준다. ‘다다’의 업무경리 류항에 따르면 2022년 9월에 개통된 ‘다다’는 지금까지 40여개 나라에서 업무를 개척했다. 지금까지 이미 광둥, 절강, 산둥, 안후 등지의 량질 상품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의 40여개 나라와 지역에 진입하도록 추동했는바 매일 수출 소포량이 40만개를 초과한다. 광주의 뷰티, 심수의 디지털 제품, 호주의 아동복, 운주의 신발, 대주우의 플라스틱 제품, 금하의 보온병(컵) 등을 해외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가속으로 진입시켰다. “우리는 대외무역경영 주체와 함께 국산품이 해외로 나가는 ‘케이크’를 함께 크게 만들 것이다.”라고 류항은 말했다.

/ 신화넷

가공유 소매가격 또 조정...유가 상승할 듯

2024년 국내 가공유 소매가격의 ‘제5차’ 조정이 3월초에 가동된다. 올해 유가는 ‘2차례 상승, 1차례 보류, 1차례 하락’을 보였다. 최근 국제유가가 또 상승했는데 유가 상승 폭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전 이번 라운드 국내 유가 통

계주기의 네번째 근무일로 현재 참고 원유 변화율은 3.35%이다. 휘발유, 디젤유는 145원/톤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산하면 리터당 0.11~0.12원 증가된다. 가격조정창구는 3월 4일 24시에 열린다. /인민넷

국내 첫 시역 C형 열차 사용에 교부



일전, 중저장중궤도빠스주식유한회사에서 연구 제작한 상해공항 연락선 첫 열차가 상해 신킨로에 도착해 사용에 교부되었다. 상해공항 연락선상 사용하게 되는 차형은 시역(市域) C형 열차인데 최고 운행시속은 160킬로메터로 지능, 선진, 안전, 편안, 공공빠스운행성 등 특징을 가진다. 해당 열차는 고속철기술 및 궤도교통 운용모식과의 결합을 실현했는데 장강삼각주 나아가 전국 시역 철도대상 가운데서 광활한 응용 전망을 가진다. 열차는 처음으로 차머리와 중간차의 동일한 차량 길이의 디자인을 채택하여 차량의 명활한 편승, 승강장 문, 활동문 등 간격 설치의 수요를 만족시켰다. 이 열차는 CTC2 + ATO 자동 반환 기능을 처음으로 실현하여 운송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국가 철도와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지능 관광

복무, 지능 감시측정, 지능 운영 및 유지 관리와 지능행차 등 첨단기술을 채용하여 시역 철도차량의 지능화 수준을 제고시켰다. 신기술, 신공예의 응용은 차량의 안전성, 신뢰성을 높인 동시에 승객들이 편안한 승차체험과 넘치는 과학기술감을 감수하게 한다. 이번 신차 운수는 철도 역력설 운수교봉기와 겹쳐져 운수전반 과정은 철도 자체 로테이션(自有轮转)모식으로 장춘에서 상해로 운송되었다. 운송전 과정의 안전과 고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저장중궤도빠스주식유한회사는 관련 단위와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운송방안을 편성했는데 신차는 평온하게 상해신공항차량림시점검수리기지 창고에 진입해 상해 시역 철도 공항연락선 첫 열차의 접수사업은 순조롭게 완수되었다. /길림일보

원으로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 다국간전자상거래는 수출 촉진 방면에서 어떤 새로운 점이 보이는가? 급속 발전의 원인은? 미래 발전 추세는?

수출 코스의 하이라이트 속속

2월 4일, 복장, 신발, 모자, 액세서리, 일용품 등 다국간전자상거래 화물을 실은 비행기 한대가 신강 카스래녕국제공항으로부터 영국 본머스에 도착했다. 화물들은 중국 업체가 아마존, 위시(Wish) 등 다국간전자상거래상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우리는 국의 다국간전자상거래에 구매, 물류, 상품정보 수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간전자상거래 공급망의 참여자이다. 작게는 머리끈, 머리핀, 크게는 발전기, 선반 등까지 해외 고객이 어떤 구매 수요가 있으면 우리는 그 구매를 돕는다.” 풍운배급사슬과학기술(신강)유한회사 책임자 장기는 기자에게 다국간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은 시효를 매우 중시하는데 카스는 ‘5개 통상구로 8개국을 통과하고 1로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독특한 지역적 우세를 갖고 있으며 1.5시간 항공경제권이 주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8개국의 주요 도시를 망라할 수 있어 독특한 대외무역 지역적 우세를 갖고 있다고 소개한다. 현재 카스해관은 ‘7×24’시간 예약통관을 실시하고 고효율적으로 통관수속을 처리하여 ‘도착하는 대로 검사하고 검사하는 대로 통관’하는 것을 상시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시장을 공고히 하는 기초에서 더욱 많은 정력을 모아 유럽시장의 새로운 고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이후 회사의 매년 현금 흐름은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카스에서 본머스로 가는 화물 항로가 개설된 후 회사가 취급하는 수출 화물은 더욱 증가되었다. 통따해 역력설, 우리는 해관 직원들과 함께 보냈다!”고 장기는 말한다. 황적으로 지리적 차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종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라고 판단하고 방향을 정한 후 삼촌의 도움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전문적으로 수출되는 기능 소파와 조합 소파를 탐색 경영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하나에 식탁 의자 2,000개를 실을 수 있지만 소파는 18세트만 실을 수 있어 소파 수출을 꺼리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해외 고객들의 소파 수요는 적지 않다.” 실선은 황개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창업 1년 반 만에 황개의 걸녕가구유한공사의 실적은 빠르게 증가해 2023년의 월수출액이 200만원을 넘어섰다. “다국간전자상거래를 통해 오래된 업계도 새로운 특색을 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국간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빌어 우리는 각종 해외 고객과 직접 교류할 수 있고 시장 리듬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제품성 가격비율을 높인다.” 황개는 현 추세에 따라 발전하면 2024년 걸녕가구의 매달 수출액은 300만 원 내지 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관총서 보도대변인, 통계분석사 사장 려대량은 다국간전자상거래의 계속적인 발전은 국내 소비자의 다양화 개성과 수요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제품이 전세계에 나가도록 노력했으며 대외무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에너지로 되었다고 했다.

정책의 봄바람

우리 나라 다국간전자상거래는 대외무역 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순응하였다.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 왕수문은 미국의 다국간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아주 유명하다면서 현재 중국에도 아주 강대하고 유명한 다국간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으며 APP 다운로드량은 전세계 앞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2023년 상해 공항 통상구 수출에서 다국간전자상거래 신고량은 4.4억 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 총액이 850억원을 초과했다. 그중 속대통,

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었다. 공급 능력이 더 강해졌다. 절강성의오시 성린무역유한회사는 다국간전자상거래 플랫폼 ‘다다(多多)’에 입주한 첫 상가로서 경영 상품은 가정용품, 주방도구, 목욕, 수납,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다. 입점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린무역의 ‘테무(Temu)’에서의 판매량이 하루 평균 근 3만건을 기록했다. 회사 총경리 곽흠흠은 바로 각급 정부 부문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및 ‘다다’에서 내놓은 완전 호스팅모드(全托管)에 힘입어 기업의 ‘공급 및 상업무역 일체화 기업 + 합작공장’ 공급망 우세가 더욱 충분히 발휘되어 해외 소비자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통관 속도가 더 빨라졌다. 1월 24일, 광서 우의관통상구 다국간전자상거래 공공통관센터에서 수출 소포가 분류선에서 패속으로 기계검사설비를 통과하고 해관검사를 마친 후 화물차에 적재돼 출국했다. 광서비월공급사슬관리유한회사 총경리 장위는 통관검사가 필요한 화물도 당일 출국할 수 있으며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화물은 즉시 수출할 수 있어 2시간이면 헬남으로 운송되어 교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의관해관 감독관리 8과 부과장 고로는 “우리는 엑스레이 등 비침입식 검사설비의 운용을 강화하고 화면 대조를 강화함으로써 소포의 개봉 수량을 최대한 낮추고 화물의 검사 발송 속도를 가속화한다.”고 소개한다. 온라인 봉사 기능이 더 향상, 방식이 더 다양해진다. 지난해 알리바바 국제역은 먼저 전 사슬 흐름 대외무역 인공지능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그가 보유한 지능상품 발표와 관리, 시장 분석, 고객 접대, 실시간 번역과 기업 관리 등 기능은 수출 기업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해외 고객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상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알리바바 국제역 관계자는 디지털 대외무역 플랫폼이든 중소 대외무역 기업

제 21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주제 유상 공모



7월, 제 21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가 예정 대로 개최된다. 자동차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금부터 제 21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의 주제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상 공모한다고 전했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14.5’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한해로 된다. 장춘시는 새 중국 자동차공업의 요람으로서 우리 나라의 중요한 자동차산업기지이다. 최근년에 장춘시는 자동차산업 집결군의 혁신발전, 가속화 발전, 고품질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여 국제 자동차도시 건설의 발걸음을 크게 내디뎠다. 아울러 장춘자동차박람회는 ‘제 1 자동차도시’의 휘황한 발전력사와 풍부한 산업을 기반으로 25년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국내 유명한 모터쇼의 하나로 되었고 자동차의 미래를 선도하고 자동차문화를 전시하며 자동차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시회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장춘시 자동차공업 발전의 강대한 동력을 과시하고 장춘시가 새 중국 자동차공업의 요람과 ‘자동차도시’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구현하였다. 제 21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주제 공모 요구사항 및 장려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장춘시 자동차산업의 고품질 발전 및 세계 일류 국제 자동차도시 건설의 분투 목표를 구현해야 한다. 2.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21회 및 25년의 휘황한 발전로정을 구현해야 한다. 3. 간결, 명쾌, 명료하면서 뜻이 완벽하며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4. 주제 설정과 함께 주제 내포설명을 100자 이내로 부가해야 한다. 작성자, 연락처,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5. 공모시각은 지금으로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6. 선정된 주제는 제 21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소식공개회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 채용되면 인민페 3000원을 장려하며 관련 매체에 선전한다. 투고 련계인은 何金辉, 张璟, 전화는 0431-82759991, 메일은 changchunauto126.com 이다.